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중국 무협 드라마 '소오강호(笑傲江湖)'에 빠져 지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니 내쳐 40편까지 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일로 못 본 경우에는 주말에 몰아 재방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보기도 했다. 중국 드라마에 호감을 느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얼굴만 예쁜 배우가 아니라 개성 있는 배우들을 기용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곱상한 미남 배우가 왕건으로도 나오고 대조영으로도 나오니 식상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사극에서는 미남 미녀 배우보다는 개성 있고 연기력이 있는 배우들을 기용한다. 특히 '소오강호'의 배역들은 각기 개성적인 용모와 연기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극의 내용이 황당무계한 무술이나 틀에 박힌 권선징악, 상투적인 애국주의의 도식에 갇히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과 안목을 추구한다. 남녀 주인공들은 강호의 전파와 사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강호의 규범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른바 지음(知音)의 관계를 맺는다. 최고의 무공은 결국 피리와 금(琴)의 합주로 연주되는 '강호를 비웃다'라는 음악으로 완성된다.

극중에 삽입된 음악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중국음악에 문외한인 나는 서둘러 이런저런 자료를 뒤져 배경 지식을 배우고 중국 전통 악기의 연주곡을 CD로 들으며 공부했다. '소오강호'란 곡에 서진(西晉)시대 죽림칠현의 하나인 혜강이 연주

소오강호(笑傲江湖)에 빠지다

했다 '광릉산(光陵散)' 한 소절을 편곡하여 사용했다는 극중 대사에 자극되어 혜강의 광릉 산에 얽힌 고사를 찾아보았다. 혜강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증손녀 남편인데, 촉나라를 정벌한 중희의 모함으로 처형되면서 형장에서 '광릉산'을 연주했다는 것이다.

드라마 '소오강호'에 대한 관심은 작가 감동과 그의 다른 무협소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국 무협소설의 문화적 의미'를 다룬 전형준 교수(필명 성민영)의 계몽적인 논문과 중국무협을 총정리한 양수중(梁守中)의 '강호를

건너 무협'의 숲을 거닐다'라는 책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에서부터 시작된 2천년 중국 무협의 역사는 협객의 역사로 중국인들 전통의 일부가 되었고, 무협소설은 단순한 대중적 오락물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적 문화 코드라는 양의 주장에 공감을 느꼈다.

아울러 전 교수의 논문을 통해 문화평론가인 고 김현 선생이 1960년대에 와룡생의 무협소설 붐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무협소설이 단순한 오락소설로서 비계성적이고 허무주의적인 당시의 한국 중산층에게 대

리안쪽을 주어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소비되었다고 일견 상식적인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무협소설의 구조는 서구의 성장소설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그의 지적은 날카로운 감각이라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파란만장한 수험시대와 편력시대를 거쳐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피터의 발랄함 마이스터와 온갖 시련을 겪으며 비극을 연마하여 무림의 절대지존으로 등극하는 서원평 같은 무협소설의 주인공은 얼마나 비슷한가.

이 대목에서 나는 1980년에 이른바 남영동에서 읽었던 '군협지'라는 무협소설

이 떠올랐다. 당시 나는 광주항쟁과 관련하여 제작거부운동을 펼치다 수배된 기자 협회장 김태홍 선배와 엮여이 보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루계릭 병으로 투병 중인 김태홍 선배에게 힘을 주소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학생 출신의 진경이 옆방에서 무협지를 빌려다 주는 바람에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모른다. 이 소설은 물론 황당무계하고 흥미진진한 대중소설이지만 당시의 나에게 단순한 대리만족과 현실도피의 기계 이상의 어떤 정신적 위안과 함께 가혹한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한편 1981년 9월, '무림파천황'이라는 무협소설을 쓴 연세대생 박영창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17개자의 죄목으로 구속되었다. 소설 가운데 정파와 사파가 벌이는 대결구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한 부분과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을 향해 '남진'을 주장한 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2006년 서울대는 개교 6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1946년 개교 이래 판공 된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도서 20권을 선정, 도서관에서 전시했는데, 그 중에는 '무림파천황'이 감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와 '황토', 현기영의 '순이 삼촌',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과 함께 담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한다. <영남대 특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자체 장학재단 운영 투명성 높여야

광주·전남 일부 지자체의 장학재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지자체 장학재단의 상당수가 기금의 반감제 모금 및 부당 사용 등 운영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강진군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군과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맺은 324개 업체로부터 사실상 반감제적으로 14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또한, 군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별로 1억 원의 장학기금 모집 목표액을 설정하고 모금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해외여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광주 광산장학회는 장학기금 수입이 원할 무단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해 6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광주시 북구는 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 등을 받

고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6명을 장학생으로 선정, 150만 원씩 지급했다.

지자체의 장학재단은 열악한 지방 교육환경을 개선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본래의 설립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아무런 취지가 좋든 해도 기금 모금이 부당하게 이뤄지거나 장학금이 용도외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얘기가. 특히 감사원의 지적대로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수단으로 전락했다면 큰 일이다.

일부 지자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왜곡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물론 사실의 진위는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과 같은 지자체 장학재단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운영의 투명성 및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5·18묘역 훼손 심각,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안에 설치된 청동 부조작품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묘지 곳곳에는 석조로 된 도로와 건물 등이 파손되고 일부 시설물은 녹슨이 있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5·18묘지 내 청동 부조작품에 수직으로 30~120cm의 균열이 나 있다고 한다. 작품 이음매 부분 곳곳에는 쌀 반 톨 크기의 작은 구멍들이 수십 개 이상 뚫려 있는 등 균열이 진행되고 있고, 표면도 청동 고유의 색 짙어지고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 1997년 설치된 높이 1.8m, 길이 22m 규모의 이 부조작품은 80년 5·18 당시 민주수호 결구대회와 햇볕시위를 배경으로 공수부대원들의 학살 장면, 부녀자들이 밥을 짓고 김밥을 나눠주는 장면, 시민군들이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청동 부조의 균열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제작 당시 동(銅) 함량이 미달됐거나 작품 두께가 너무 얇아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부실 제작과 감독 소홀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조를 청동으로 제작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작품의 역사성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13년 밖에 안 된 작품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광주에서 관리하는 5·18 구 묘역도 비석이 부서져 있고 태극기가 찢어지는 등 관리 소홀이 심각하다고 한다.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비칠 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부실 제작을 한 관계자와 감독기관에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와 광주시 역시 묘역에 대한 훼손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

묘역의 관리 부실은 5·18 영령에 대한 모독이자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NGO 칼럼

장경수



점차 증가하는 청년실업, 잇따른 경기침체로부터 좀처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불경기에서 광주시민들의 주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인 2015년 하계U대회 준비를 위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세계에 전할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프렌즈'가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는 대학(University)과 올림피아드(Olympiad)의 합성어로 '세계대학생들의 체육대

(光)산업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스포츠 마케팅 산업의 활성화로 광주지역대학과 세계 각국 대학 간의 학술 및 예술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인 2015년 하계U대회 준비를 위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광주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수년동안 위축된 데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설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되면서 전세값이 90% 가까이 폭등하는 등 전세 대란과 주택구입난을 야기하여 장애인을 포함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6·2 지방선거시 장애인선거공

기고

정기석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다. 그러나 어둡고 지지부진한 곳에는 항상 쓰레기가 차고 넘친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라도 길거리에 수많은 각종 쓰레기가 넘쳐나면 도시의 좋은 이미지가 사라진다. 낡고 오래된 구 도심지역이라도 주변이 잘 정리되고 깨끗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디자인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디자인 철학이 도시의 재상으로 흐르면서 문화적 특징을 잘 표현하여

달한다.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는 약 80%가 육지에서 발생하고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는 약 40만톤의 해양쓰레기가 침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는 계속 해저에 누적되어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이 되어 불꽃없는 바닷가로 전락시키고 있다.

환경재앙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를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행동이 외부인들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

청소도 공공디자인이다

걷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 남부 사뻬시는 각종 산업폐기물과 쓰레기 비빔밥이 되어 '도심 속 시궁창'이란 별칭이 따라다닐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위안당호 사업인 도시재생을 통한 문화 창출을 지자체와 지역주민, 각 관련단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연안언덕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디자인도시로 리모델링되어 지역 정체성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시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도시, 농촌, 여촌 등 각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공장소에 대한 주변정리, 주변정돈, 주변정결을 위해 지역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관광객유입, 외부 투자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계되어 미래를 여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남으로 변화되어가기 때문이다.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

여 지역 이미지를 격하시킨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환경을 파괴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이웃을 배려하는 윤리의식, 도덕적 양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적공간인 내 집 대문을 나서서 순간부터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다. 골목길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도 공공디자인이다.

도시, 농촌, 여촌 등 각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공장소에 대한 주변정리, 주변정돈, 주변정결을 위해 지역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관광객유입, 외부 투자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계되어 미래를 여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전남으로 변화되어가기 때문이다.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

無等鼓

"이제는 '늑색고양이'가 방울을 흔들 때가 됐다."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중국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대선 회담, 위안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바탕으로 앞만 보고 달려온 중국. 극단적인 실용주의에 기초한 개혁개방으로 상전만인 변화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회에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년) 기간에는 성장률을 연평균 7%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의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 연평균 11%라는 투자위주의 GDP 성장률을 구가하며 세계경제에 돌풍을 일으킨 중국인만큼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원 총리는 앞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전, 신에너지, 바

이요, 첨단설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8개 분야의 전략적 신흥산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빈부격차로 들쭉거리는 민심을 다독거리는 정책도 발표했다.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방위하게 배분하고 동시에 내수를 확대하려는 포석이라는 풀이다.

중국 정부의 방향 선회에 따라 이제까지 중국 발전을 지탱해 온 '흑묘백묘'는 첨단산업과 환경보전 중시정책을 지칭하는 '흑묘'(黑貓)로 완전히 갈갈이를 할 판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성장일변도 정책에 주력한 '중국호'가 이제는 앞뒤를 재고 나가겠다며 새로운 눈을 뜬 것이다. 즉, '분배'와 '환경'의 가치의 성장과 병행함으로써 과거 한국 등 개발국들이 뒤늦게 지불해야 했던 '성장통'을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이다.

늑색고양이로 탈바꿈한 중국의 향후 30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중국에 민감한 우리로서는 응당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

늑색 고양이



광주 U대회 성공적인 준비를 염원하며

회다. 광주시가 U대회 개최를 가슴 졸이며 갈망하는 것은 문화·인권도시로서 지구촌 세계인과 함께 평화를 기원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계U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광주의 브랜드를 세계인의 뇌리에 새기고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경쟁력이 무뎠 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각종 산업시설 유치 등을 작·간접적으로 홍보한다든 외자유치와 산업시설을 건설하여 경기 활성화와 청·장년 실업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또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지역균형개발과 경제적 파급효과로 크게 발전할 것이다.

국민 여가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호남지역이 휴양지로서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공동 브랜드인 광

악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공공주택보급에 대한 시급한 주거 환경개선 등이 요구된다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한 마음으로 뭉쳐 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요, '창조의 도시 행복한 광주'로의 결실이 이루어져 진정한 통합사회가 실현되길 간절히 마음으로 희망해 본다.

끝으로 장애인 6만여 가족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U대회준비에 적극 동참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온라인 경매 대출업 개인 신용정보 노출 심각

최근 온라인 경매방식 대출업을 표방한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경매방식 대출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용도와 원하는 대출금, 대출이자 등의 조건을 대출경매 사이트에 올리면 대부업체들이 금액과 이자 등의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대출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대부업체의 조건을 선택하면 입찰에 이르게 되고 대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자는 우선 온라인상에 자신의 정

보를 올려야 한다. 즉, 사진을 포함한 성별, 나이, 거주지역, 신용등급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만 한다.

결국 개인의 신용정보가 완전히 노출되는 것이다. 아무리 본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로그인조차 필요 없이 누구나 대출 신청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대출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2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智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재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사건팀 2200-571	문회홍보국 2200-541
정경부 2200-612	사건팀 2200-693	조사부 2200-57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건팀 2200-693	조사부 2200-571	광고매체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다자간 2200-536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서울지사 02-773-9331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F A X 02-773-9335>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